

경상북도와 시마네현 교류 중단과 전망

-교류중단 2년간의 양 지자체의 손익계산서-

崔長根*

目 次

1. 들어가면서
 2. 경상북도의 국제교류
 - 2.1 지자체의 교류 목적과 중요성
 - 2.2 국제교류의 현황
 3. 양 지방자치체의 교류현황
-‘다케시마의 날’ 제정이전-
 4. 양 지자체의 교류 단절
 - 4.1 교류단절과 경상북도의 대응
 - 4.2 교류재개의 움직임
 5. 중단이후의 2년간의 득과 실
 - 5.1 경상북도의 경우
 - 5.2 시마네현의 경우
 6. 맺으면서
-
-

1. 들어가면서

경상북도는 1989년 6월 7일 시마네현의 자매결연 제의로 1989년 10월 6일 시마네현청에서 도-현 자매결연을 체결하여 15년 6개월간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왔다.¹⁾

* 대구대학교 일본어일본학과 전임강사 일본정치사전공.

1) 민단 시마네현 본부의 박희택(朴熙沢) 상임고문은 양 지방자치체의 결연을 중개한 주인공이다. 그는 한국 경상북도와 시마네현(島根県)의 자매결연에 진력하여 아이들의 교류사업 ‘소년의 날개’를

그런데, 2005년 3월 16일 시마네현²⁾이 ‘다케시마의 날’을 제정하여 다케시마 영유권을 주장했고, 경상북도는 항의차원에서 ‘다케시마의 날’의 취소를 요청했는데, 여기에 응하지 않아 일방적으로 교류를 중단했다.³⁾ 현재로서는 재개의 가능성을 추측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⁴⁾

양 지방자치체는 자매결연으로 상호 발전을 위해 서로 협력하여 직간접적인 소정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었다. 양 지방자치체는 교류중단으로 상호이익 확보라는 점에서 차질이 생기게 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이러한 문제제기에 의거하여 교류중단으로 인해 발생하는 양 지자체의 득과 실을 고찰하는 데 있다. 만약 양 지자체가 교류중단으로 실이 두드러지게 많을 경우에는 교류를 재개해야 할 것이다. 일본이 다케시마의 날의 조례제정을 파기하지 않는 상황에서 교류중단이 득이라고 생각한다면 한국은 지금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본 연구는 이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도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연구방법은 우선 이론적인 지자체의 교류 목적에 관해서 살펴본다. 동시에 교류단절 이전과 이후, 시마네 현과 경상북도의 교류실적에 관해 고찰하여 양 지자체의 교류의 중요성을 검토해본다. 이로서 양 지자체의 교류재개가 시급하고 중요한 사안인가를 검증할 수 있다. 둘째는 교류중단으로 인한 양 지자체의 득과 실에 관해서 고찰해본다. 일본의 입장에서는 다케시마의 날을 제정함으로써 발생하는 득과 실이 될 것이고, 한국의 입장에서는 교류를 중단함으로써 발생하는 득과 실이 될 것이다. 셋째는 일본이 다케시마의 날을 제정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계몽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상황에서 양 지자체는 상호 발전을 위해 어떠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해 전망할 것이다.

선행연구에 관해서는 그다지 오래된 사안이 아니어서 아직까지 이 영역을 검증한 연구는 없다고 사료된다.⁵⁾

이끌어 왔으며, 한일의 가교 입장에서 조기타개를 원하고 있다. 「독도문제 해결을 위한 심포지엄 서둘러야」, http://www.mindan.org/kr/newspaper/read_artcl.php?newsid=3594, 「민단신문」, 2005년4월13일.

- 2) 시마네현의 현황으로는 일본 本洲의 서남부, 동해와 접합(현청소재지 松江市) 지점에 위치하고 있고, 면적은 6,628km²(경북의 1/3 정도)이고, 지역적 특성은 긴 해안선과 신지 호수를 중심으로 한 호반도 시로서, 주요산업은 농업(쌀포도,멜론), 제조업(목재,요업), 수산업(미역,돔)이다.
- 3) 2005년 3월 16일 경상북도(경상북도지사 이의근)는 「경상북도의 독도(獨島, Dokdo)에 대한 침략 행위는 시마네현의 도발적 행위는 지방정부간의 외교관계에서도 전례가 없는 만행이며, 주권국가에 대한 도전행위로 규탄 받아 마땅하다」고 하는 성명서를 내고 교류를 중단했다. [http://www.dokdo.go.kr/news/dokdo_korean\(20050316\).htm](http://www.dokdo.go.kr/news/dokdo_korean(20050316).htm)(2007년 6월 20일 검색), 시마네현/다케시마·북방영토반환요구운동 시마네현민회의편(2006), 『다케시마 -돌아오라! 다케시마-』, pp.1-3.
- 4) 양국 간의 국교는 단절되지 않았지만, 심각한 정치외교관계를 초래하고 있으나, 경제적인 문제까지 문제가 확산되지는 않았다. 다만 자유무역협정의 논의는 중단된 상태로서 현상유지 상태로서 발전적인 논의는 이루어 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2. 경상북도의 국제교류

2.1 지자체의 교류 목적과 중요성

본연구의 목적이 교류중단으로 인한 양지자체의 득과 실을 분석하는 논문이므로, 분석기준으로서 <교류목적과 중요성>의 선행연구를 활용했다.⁶⁾ 국제교류협력은 상호간에 유익해야한다. 바람직한 교류와 협력을 위해서는 선린우호관계를 증진함과 동시에 사람, 정보, 우수사례, 아이디어 등을 교환하여 다양한 형태의 결과물이 생산될 수 있다.⁷⁾ 가치를 창출케 해주는 유용한 발전전략 중의 하나가 지방자치단체간의 국제교류이다. 지자체의 교류는 다음과 같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⁸⁾

- ①국제협력 인식 제고: 지방자치단체 직원과 주민의 국제화 마인드 함양 및 국제교류협력 공감대 형성, 국제흐름과 국제기준에 대한 이해와 세계시민으로서의 의식 개혁, 해외연수·견학·시찰 등을 통한 견문 확장 및 개방적 세계관 도모할 수 있다.
- ②행정선진화 및 역량 제고: 발전된 선진행정과 선진제도(법과 제도 등) 및 우수사례 벤치마킹, 외국의 지방자치단체와 쌍방향 상호협력 체제 구축, 지방과 도시의 국제화 기반 조성 및 내부수용능력과 국제적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다.
- ③지역경제 활성화: 지방경제와 지역산업을 자극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외국인, 외국기업, 외국기관의 국내 활동 지원, 우수기술, 해외자본, 우수인재를 유치할 수 있다.
- ④공동협력: 국제적 공동관심사(환경, 보건, 안전 등) 협의 및 상호지원 협력, 자치관련 국제기구 가입 및 국제적 연대 활동 증대, 국가 외교의 보완 및 지방차원의 지역외교를 증진시킬 수 있다.
- ⑤기타, 지방인재와 지방교육연구기관의 육성지원, 외국문화 이해와 자국문화 자긍심 고취, 지역정치행정과 사회문화의 발전에 필요한 국제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여러 가지 국제교류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보다 전문적인 식견과 정교한 전략이 필요하다. 그러한 준비나 내부적 역량구축 없이 국제교

5) 경상북도편(2007), 『독도·동해 현안 대응능력 제고 방안 모색』, 동북아역사재단, 경상북도 주체, 학술심포지움 보고서(경주현대호텔), 2007년6월26일자. pp.1-15.

6) 주10) 참조.

7) 주10) 참조. 국제교류의 기본모형으로 다양한 형태를 구상해볼 수 있겠지만, 제일 기본적인 차원에서 볼 때 인력(P), 정보(I), 우수사례(B), 아이디어(I) 등이 국제교류의 근간이 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의 영어 머리글자를 따서 PIBI모형이라고 명명한다.

8) 주10) 참조.

류를 추진하게 되면 일시적으로 혹은 부분적으로 성공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중장기적으로 성공하기 어렵다.

다시 말해서 “지속가능한 국제교류”(sustainable international exchange)를 담보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지속가능한 국제교류의 성공을 위해서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전담조직과 전문 인력을 확보하여 실현가능하고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방향을 설정하여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⁹⁾

본 연구는 경상북도와 시마네현 양 지자체간의 교류가 얼마만큼 성과를 달성하고 있는가를 분석하는 연구이므로, 상기에 제시된 선행연구의 결과물에 얼마나 근접성을 가지고 있는지, 모델로 삼으려고 한다.

2.2 국제교류의 현황

경상북도는 1989년 시마네현의 제안으로 자매결연을 체결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공무원교환근무, 연수생 상호파견 정도이고, 중소기업의 시장개척 활동도 추진해왔지만, 그다지 큰 성과를 얻지 못했다. 최근에 들어와서 국제교류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절실히 인식하게 되어 특히 “2007년도에는 세계 각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해외 자문관, 외국 자매결연 자치단체와의 교류확대 등 인적네트워크 확충, 강화를 통해 세계 속의 경북 실현과 지역제품의 해외진출 등 통상외교에 적극 활용”할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¹⁰⁾ 2007년도의 구체적인 계획(안)은 다음과 같다.

①국제도시간 자매결연 확대 및 실질적 교류 강화

경상북도는 자매결연을 맺은 9개국 9개 자치단체(미국 오하이오주, 중국 하남성, 러시아 이르쿠츠크주, 남아공 노스웨스트주, 프랑스 알자스주, 터키 불사주, 베트남 타이응우엔성, 인도네시아 족자카르타주, 스페인 까스띠야 레온주)와의 인적·물적인 다양한 교류를 통해 유대를 강화하고, 그동안 중국·베트남 등 일부 국가와의 편향적인 교류를 지양하고 상호주의 원칙에 의거 호혜적 교류를 추진하기로 했다. 시마네현은 교류단절로 자매결연단체에서 제외되어 교류계획이 없다.

특히 자매단체 국가와 수교 기념행사로 한-중 수교 15주년 기념으로 금년 5

9) 국제교류의 <목적과 중요성>에 관한 내용은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의 자료를 활용(도표화된 것은 문장화함)했다. <http://www2.klafir.or.kr/>(2007년 6월 20일 검색), 필자의 연구내용이 아님.

10) 2007년 2월 9일 수정된 자료로서,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의 자료를 활용했음, 필자의 연구내용이 아님. <http://www2.klafir.or.kr/>(2007년 6월 20일 검색).

월에 개최되는 하남성 주최 「중국 중부박람회」에 참석할 계획이며, 한-터키 수교 50주년을 기념하여 터키 불사주와의 수교기념행사를 공동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경제발전 가능성이 높은 해외지역과의 통상교류 확대를 위해 경제적 실익이 큰 인도와 호주, 멕시코 등과 새로운 전략 파트너(경제우호도시, 자매결연 등)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②경상북도 해외자문관 운영 강화

경상북도는 세계 각국의 덕망 있는 교포인사를 대상으로 국제교류·통상외교에 대한 자문과 도정홍보를 위해 '95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해외자문관 운영을 강화하여 변화하는 국제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전 세계 35개국 9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해외자문관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젊고 유능한 CEO를 신규 위촉하고, 경주엑스포 개최기간중 제6회 해외자문관총회를 경주에서 개최하여 도내 기업의 해외진출 등 경상북도의 국제통상업무 지원방안에 대한 자문을 구할 예정이다.

③우호단체 외국공무원 초청 연수

또한 우리 도와 자매우호 관계에 있는 해외자치단체 공무원들을 초청하여 한국어 연수와 한국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친 경북인을 양성한다.

중국, 캄보디아, 베트남, 남아공, 몽골, 터키 등 자매우호단체 공무원 6명 정도를 초청하여 6개월 과정으로 대학에 한국어연수 프로그램을 위탁 운영하며,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과 공동으로 멕시코, 필리핀 등 해외 자치단체 공무원 2명 정도를 초청하여 통상외교팀에 근무하는 K2H(Korea Heart to Heart)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다.

④해외 한인 경제인단체와 경제교류협력 강화

도내 기업의 유럽진출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올 3월 EU 25개국 650여명의 경제인으로 구성된 유럽한인경제인단체총연합회와의 업무제휴 협약을 체결하는 등 재외 한인경제단체의 인적 네트워크 형성으로 투자통상 거점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경상북도 해외도민회(5개국 9개 도민회) 활성화를 위한 지원, 해외도민회 자녀 모국방문 및 고향체험 사업, 세계 127개국 1,000여개의 회원으로 구성된 지방정부 국제기구인 UCLG(세계지방자치단체연합)의 2007 제주 세계총회 참가자 경북 초청 등을 통해 해외 인적네트워크를 확충하고 세계 속의 경북의 위상 제고 및 경북을 세계에 알리는 장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이상에서 보는 것처럼, 경상북도는 지방화시대를 향해서 본격적이고 적극적인 국제교류를 추진하려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역설적으로 말한다면, 특히 시마네현과는 15년간 국제교류를 맺어왔는데, 지금까지 본격적인 국제교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다케시마 날’ 조례제정으로 교류가 단절된 경상북도와 시마네현 간의 교류역사 15년의 상황을 살펴보기로 한다.

3. 양 지방자치체의 교류현황

-‘다케시마의 날’ 제정이전-

국제사회는 세계의 평화와 역내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 서로 다투어 지역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다. 그러나 동아시아에서는 전문가들의 논의로 다 같이 필요성을 절감하면서도 실질적으로 동아시아 각국의 내셔널리즘이 여전히 팽배하여 아직 적극적인 협력을 이루어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1989년 경상북도와 시마네현은 국가 간의 협력이 성숙될 때까지 우선적으로 지자체 간의 교류를 통하여 양국관계를 원활하게 함으로써 중국적으로는 지역공동체가 가능할 것이라는 취지로 공동의 이익을 위해 교류의 장을 마련했다. 그러나 시마네현의 ‘다케시마의 날’ 제정으로 양 지자체간의 교류가 단절되었다.¹¹⁾ 일본의 진보지로 알려진 아사히(朝日)신문은 “정부가 매듭짓지 못하는 문제일수록 한국의 지자체와의 교류 확대를, 일반 대중들의 우호를 넓혀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시마네 현의회는 알아야 할 것이다. 이것은 한국 측도 마찬가지이다.”라고 지자체의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¹²⁾ 양 지자체

11) 시마네현이 다케시마의 날을 제정한 동기는 100주년(1905년 2월 22일 독도를 시마네현 소속 땅이라고 고지한 날)을 기회로, 계몽 활동을 통해, 한국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이 섬의 ‘영유권 확립’을 노리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에는 1998년 11월 한일 간에 한국 측이 영해로 하는 독도 주변 12해리를 제외한 동해의 넓은 해역을 공동 관리하는 ‘잠정수역’으로 하여, 영유권문제와는 별도로 양국 어민의 조업을 인정하는 어업협정을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한국 어선이 독도의 실효적 지배로 12해리를 장악하여 일본 어선들이 조업을 할 수 없다는 시마네현 등의 산인 연안(동해에 면한 지역)의 어민들은 불만을 갖고 있었던 것이다. 주)13 참조.

의 교류단절은 유감스러운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럼, 15년간의 양 지자체의 교류현황에 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1980년대 일본정부가 국가 간의 상호 의존관계가 한층 깊어져 국제화를 선언함에 따라,¹³⁾ 시마네현도 그 일환으로 세계 각국의 여러 지역과 적극적으로 교류를 시작했다. 일본정부의 각국과의 인적, 물적, 정보 교류의 확대와 더불어 시마네현도 지역과 시민차원에서 사람, 문화, 경제 등 다방면으로 국제교류를 시도했다. 시마네현은 아래 세계의 13개 지역과 국제교류를 해왔으나, 이번 사태로 한국의 경상북도와는 교류가 단절된 상태이다.¹⁴⁾

1989년 교류체결 이래, 일본 시마네현이 경상북도와와의 교류에서 목표했던 활동은 문화교류, 학술교류, 경제교류 등이었다.

경상북도는 교류를 시작한 그해부터 2005년까지 시마네현의 초·중학생 130여 명을 초청하여 홈스테이를 경험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해왔다.¹⁵⁾

경상북도는 시마네현의 제안으로 1996년 9월 도청에 본부를 두는 「동북아시아지역 자치단체연합회」를 설치했다. 참가회원은 동북아시아에 있어서 여러 지역 간의 교류·협력을 적극적,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환일본해(환동해)’지역의 자치단체가 중심이 되었는데, 경상북도와 시마네현도 다 같이 회원이다.¹⁶⁾ 또한 1998년 10월 「동북아시아지역 자치단체회의 98」에서 환경분과위원회 등을 설치하기로 결정하였다. 그 후 격년으로 총회 및 실무위원회가 번갈아 매년 1회 개최되었고, 2001년 5월부터는 한국 경상북도에 상설사무국을 설치했다.¹⁷⁾

일본 시마네현과 경상북도는 매년 정기적으로 미술교류전을 개최해왔다. 제1회 대회는 1998년 시마네현에서 개최되었고, 제6회 대회는 2004년 7월 23일-7월 27일 5일간 안동시민회관에서 개최되었으나, 그 이후에는 중단된 상태이다.¹⁸⁾

12) 『朝日新聞』 2006년 3월 11일 사설.

13) 일본은 1980년도를 국제화시대를 선언하여 그 일환으로 시마네현은 지리적 근접성과 역사적 연고성을 바탕으로 경상북도에 자매결연을 제안하여 교류가 실현된 것이다.

14) 세계와 시마네,

<http://www.pref.shimane.jp/section/kokusai/foreign/kokusai-k/f-01/sekai.html>(2007년 6월 22일 검색), 아래 그림도 「세계와 시마네」에서 인용했음.

15) 독도를 자기네 민간교류로 해법찾자(조규철 / 한국외대 교수·일본정치학),

<http://media.paran.com/snews/newsview.php?dirnews=354794&year=2006>(2007년 6월 22일 검색),

16) 동북아시아지역 자치단체연합, http://www.npec.or.jp/northeast_asia/korea2/introduction/

17) 목적은 동북아시아지역 자치단체교류·협력에 대한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상호이해에 입각한 신뢰관계를 구축함으로써 동북아시아지역 전체 발전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사업은 ①동북아시아지역 자치단체회의를 정례적(2년에 1회) 개최, ②지역간의 경제·기술 및 개발에 관한 정보수집·제공, ③교류·협력에 관한 사업의 지원 및 추진 등이다. 2006년 10월 현재 참가국은 6개국 65자치단체(중국 6, 일본 10, 몽골 22, 한국 11, 북조선 2, 러시아 14)이다.

또한 경상북도와 시마네현의 공동 주체로 해외공연을 개최하기도 했는데, 경상북도는 1999년 11월 2일, 11월 5일 2회에 걸쳐, 일본 시마네현의 멧세나 전시장에서 개최되는 대회에 공연단을 파견했다.

경상북도의회는 2003년 7월 22일부터 6일간의 일정으로 4명의 의원(경상북도회의의장, 부의장, 국제친선의원연맹회장, 국제친선의원연맹부회장)이 시마네현의회의 초청으로 시마네현의회를 방문했다. 방문목적은 도,현간의 친선교류와 더불어 ‘2003경주세계문화엑스포’를 홍보하는 것이었다. 일행은 시마네현의회와 더불어 나라현 의회에도 방문하여 엑스포 입장권 등을 전달했다.¹⁹⁾

한·중·일 3국의 지자체는 2002년도부터 ‘교류의 날개 사업’을 추진해왔다. 이는 한·중수교 10주년, 중·일수교 40주년을 기념하여 3개 단체가 지역별로 매년 개최하고 있다.²⁰⁾

교류의 목적은 동북아시아지역 자치단체 청·장년들의 폭넓은 교류와 친선도모를 통한 민간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 사업은 경상북도와 경상북도의 자매결연 도시인 일본 시마네현과 시마네현의 우호교류도시인 중국 영하회족 자치구의 3개 자치단체 50여 명의 청·장년들이 각국을 순회하면서 3개국의 청년이 함께 모여 주최국의 전통문화를 체험하고 현대사회 전반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 등, 상호간의 신뢰구축과 동북아시아의 네트워크 구축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 2003년도에 이어 2004년에는 경상북도가 2월 21일부터 25일까지 경주, 안동, 영주 등지에서 한중일의 고교생, 대학생, 일반인 등 70명을 초청하여 교류행사를 개최했다. 2월말에는 일본 시마네현에서, 8월에는 중국 영하회족자치구에서 각각 5일간의 일정으로 전통문화를 체험하면서 우의를 다졌다.²¹⁾

경상북도 도교육청과 시마네현 교육위원회는 1997년부터 매년 1명씩 교원을 상호 파견해왔다.²²⁾ 2005년 3월 교류가 중단 될 때까지 시마네 현 교육위원회

18) 일본시마네현 경상북도 미술교류진, http://www.gyeongbukart.com/m1/m1_2.html(2007년6월22일 검색), 제1회 1998년 8월13일-8월19일 일본시마네현, 제2회 1999년 7월12일-7월17일 구미 문화예술관, 제3회 2000년 7월25일-7월31일 일본 시마네현 현립 미술관, 제4회 2002년7월25일-7월30일 구미 문화예술관, 제5회 2003년 7월23일-7월27일 일본시마네 현립 미술관, 제6회 2004년 7월23일-7월27일 안동 시민회관.

19) 일본 시마네현의회 방문,
[http://gbcl.yuncom.com/b_council3/viewbody.php?code=board_news&page=8&number=141&keyfield=&key=\(2007년 6월 22일 검색\)](http://gbcl.yuncom.com/b_council3/viewbody.php?code=board_news&page=8&number=141&keyfield=&key=(2007년 6월 22일 검색))

20) 세방화시대에 대응하는 적극적 국제화 추진 세방화시대에 대응하는 적극적 국제화 추진 http://webzine.klafir.or.kr/read.htm?middle_title_no=40(2007년 6월 23일 검색)

21) 경상북도, 「한중일을 잇는 교류의 날개」 행사 개최,
<http://www.klafir.or.kr/info/i02/view.jsp?pkey=963>(2007년 6월 23일 검색)

22) 경북-日 시마네현 교원 교류 제개,

에서 4명, 경상북도교육청에서 7명의 교사를 파견한 실적을 갖고 있었다.²³⁾

이와 같이 경상북도는 21세기가 지방화와 세계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이른바, 세방(世方)화시대를 맞이하여 2004년에도 ‘한·중·일 교류의 날개’ 사업,을 비롯해서 한·중·일 청년들의 만남의 장인 동북아지역 6개국의 40여 개 단체가 참여하는 ‘동북아 비즈니스 촉진회의’, ‘경북명예자문관’제도를 확대 운영하는 등, 다양하고 적극적인 국제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²⁴⁾

양지자체는 이상과 같은 직접적인 교류 이외에도 민간교류를 통한 간접적인 교류도 행하였다. 경북대학교와 시마네대학 간에 연구자를 교환했고, 경상북도 청도는 소싸움대회에 매년처럼 시마네현의 대표단을 초청했다. 또 1999년 보존회는 시마네현에서 개최되는 세계청소년민속축제에 하외별신굿탈놀이를 참가시켰다.²⁵⁾

2003년 JET-AA 대한민국지부²⁶⁾는 각각 시마네현 3명, 현청 2명, 마츠에서 1명의 회원을 파견했다.²⁷⁾

이처럼, 양 지자체간에는 15년 동안 우호관계를 유지하면서 교류해왔는데, 실지로는 시마네현의 적극적인 제안에 대해 경상북도가 소극적으로 응하는 수준에 머물고, 경상북도가 그다지 교류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느끼지 못하여 지자체의 교류목적에 부응하는 성과를 달성했다고는 말할 수 없을 것이다.

<http://news.kbs.co.kr/article/local/200604/20060405/860202.html>(2007년 6월 21일 검색)

23) 『山陰中央新報』 2006년 4월 5일.

24) 세방화시대에 대응하는 적극적 국제화 추진세방화시대에 대응하는 적극적 국제화 추진
http://webzine.klafir.or.kr/read.htm?middle_title_no=40(2007년 6월 23일 검색)

25) 하외별신굿 탈놀이 보존회,
<http://www.hahoemask.co.kr/board/index.php?doc=korea/hahoemask1/index2.html>(2007년 6월22일 검색)

26) JET란, Japan Exchange and Teaching Programme의 약칭으로 위무성, 문부과학성, 총무성이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여러 외국의 젊은이들을 일본에 초대하여, 일본 전국의 중학교나 고등학교에서 외국어나 스포츠 등을 가르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국제교류를 위해 일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2001년 1월 현재 JET-AA의 활동은 세계11개국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44개 지부에서 약 11,400명의 회원이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다.

http://www.jetaakorea.org/newletter/no06/html/sub_13.html(2007년 6월 20일 검색)

27) ①제트는 매주 1회 2시간씩 현 직원을 대상으로 연15회~20회 한국어강좌를 실시했다. ②경상북도와 교류관련 업무의 통번역을 담당했고, 교류 지자체와의 관련공문서번역 및 시마네현이 간행하는 한국어 팸플렛 등의 번역과 감수도 담당했다. 한일 교류사업의 수행통역을 비롯해, 레셉선, 취재, 예방 통역 등 다양한 분야의 통역을 담당했다. ③한일 2개 국어에 의한 뉴스레터 「시마네 이모저모」를 편집 발행했다. ④학기 중에는 주 1, 2회 학교를 방문하여 「종합적인 학습」 시간을 통해 국제교류를 활성화시켰다.

http://www.jetaakorea.org/newletter/no06/html/sub_13.html(2007년 6월 20일 검색),

4. 양 지자체의 교류 단절

4.1 교류단절과 경상북도의 대응

① 양 지자체의 교류단절

경상북도는 시마네현의 ‘다케시마의 날’ 조례안 상정에 맞서 자매관계인 시마네현에 대해 교류의 전면 중단을 비롯해, 시마네현에 파견된 도 직원의 즉각 소환과 도에 파견된 시마네현 직원의 출근정지 조치 등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시마네현의 스미타 노부요시(澄田信義) 지사는 “다케시마 문제는 양국의 외교 협상을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일”이라며 “현과 도의 국제교류와는 분리, 취급돼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²⁸⁾ 경상북도는 조례안이 의회에 통과되자, 15년 동안 맺어온 자매결연 관계를 전적으로 파기한다고 선언했다. 이에 따라 자매 결연을 맺고 있던 진주, 밀양, 대전시도 시마네현의 마쓰에(松江), 야스기(安來), 오다(大田)시에 대해 각각 제휴 중단을 통보했으며, 2005년 ‘우정의 해’를 기념하기 위해 예정되었던 사업도 4건 취소되었다.²⁹⁾ 이외에도 그 여파로 24개 광역 지자체에서 52건 이상의 교류행사가 중단되었다. 그 내용은 자매도시 제휴 파기, 수학여행³⁰⁾ 및 학술교류, 문화교류³¹⁾ 등에 대한 중단이 많았다.³²⁾

경상북도는 시마네현과의 자매결연 철회에 따른 향후 계획은 제반연건을 고려하여 시마네현과 적절한 관계를 모색하기로 했다. 즉 시마네현의 ‘다케시마의 날’ 조례제정을 파기하면 교류를 재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28) 일본 시마네현 ‘다케시마의 날’ 조례안 상정,

<http://www.chosun.com/international/news/200502/200502230185.html>(2007년 6월 20일 검색)

29) 민간교류 50여건 취소… 한·일 ‘독도 후폭풍’,

http://article.joins.com/article/article.asp?ctg=1000&Total_ID=9934(2007년 6월 22일 검색)

30) 1994년부터 매년 한국으로 수학여행을 갔던 돗토리(鳥取)현의 난부(南部)중학교는 25일 밤 학부 모회의를 열고 4월 말로 예정했던 올해 여행 계획을 취소했다. 교류, 협력 학교로 방문지 중 하나인 서울 D중 측이 “교류를 중단하고 싶다”고 통보해 왔기 때문이다.

31) 강릉시는 2005년 3월 26일 강릉시에서 열릴 예정이던 나가노(長野)현 이타(飲田)시와의 초등학교 축구 친선경기는 강릉시의 요청으로 무산됐다. 후쿠오카(福岡)현 무나카타(宗像)시에서 2005년 3월 27일 열린 무용 공연은 반쪽 행사가 됐다. 당초 한·일 양국의 전통무용을 한 무대에 올린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한국 측 공연단이 1주일을 앞두고 “독도 문제가 조용해지면 가겠다”며 불참을 통보했다. 주최 측인 무나카타시 무용협회는 “6000만 엔의 예산을 들여 1년여 동안 공연을 준비했다”고 했다. 경상북도의 주관으로 1989년 이래 추진해온 시마네현의 초·중학생 130여명이 참가하는 한국 홈스테이 프로그램도 2006년부터 한국측 단체들이 받기를 거절하여 위기에 놓였다.

32) 민간교류 50여건 취소… 한·일 ‘독도 후폭풍’,

http://article.joins.com/article/article.asp?ctg=1000&Total_ID=9934(2007년 6월 22일 검색),

『朝日新聞』, 2005년 3월 28일.

②경상북도의 대응

경상북도는 시마네현의 ‘다케시마의 날’ 조례제정으로 더 이상 시마네현과의 교류는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여 교류를 중단했다. 지자체의 교류는 국가 간의 원만하지 못한 외교관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도 있었다. 그런데 경상북도의 입장에서 보면, 교류목적이 지방의 발전을 위한 문화교류, 학술교류, 경제교류를 하는 것인데, 국가주권의 침해라는 영유권주장은 결연도시에 대한 신의를 저버리는 행동으로서 더 이상 교류의 의미가 없어졌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마네현은 「영토문제와 국제교류는 별개, 상호 냉정하게 이해하는 성숙된 관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하여 지자체간의 교류와 대한민국의 영토주권을 침해하는 것과는 별개라는 모순적인 논리를 펴고 있다.

경상북도의 대응조치

일시	대응조치
2005년 3월16일	시마네현과의 자매결연 파기 및 단교선언, 독도관련 전담조직 구성·운영(자치행정과 독도지킴이팀, 인원 4명)
3월16일	도의회 결의문 채택(시마네현 행위 규탄)
3월18일	도지사(→시마네현지사)항의서한 송부(시마네현과위 자매결연관계 철회를 유감스럽게 생각, 정확한 역사인식과 현명한 판단으로 조례안의 즉각적인 폐기를 바랍)
3월22일	시마네현지사 서한문(영토문제와 국제교류는 별개, 상호 냉정하게 이해하는 성숙된 관계 구축이 필요)
3월28일	독도지킴이 종합대책 수립·발표
4월18일	울릉군 독도관리사무소 설치(직원, 12명)
6월19일	독도환경보전 및 독도주권수호 웅변·글짓기대회개최 후원(한국문화예술진흥회 주관)
6월20일	독도 홍보책자 제작 배포(영·불어판)
7월4일	경상북도의회 『독도의 달(10월)』 조례제정(매년 10월중 공무원 일본방문 제한)
8월9일	독도 홍보리플렛 제작 배포(자체단체, 고속도휴게소 등)
8월15일	광복60주년 기념행사를 울릉군에서 개최, 동도에 멸실·훼손된 독도표석 복원(경계비석 등 3개)
12월14일	‘독도가치의 재조명’ 포럼개최
2006년 2월16일	‘역사와 의식 독도진경 특별전’ 개최
2월22일	‘독도의 자원과 미래’ 학술토론회 개최
3월30일	일본 고교 교과서 내용 왜곡에 대한 성명서 발표(도지사)
4월17일	한국EEZ내 일본 수로탐사계획에 대한 성명서 발표(도지사)
4월21일	독도방문 경비대 위문 및 탐사계획 철회 촉구(도지사)
5월4일	독도(서도) 어업인 숙소에 일반전화 개통
8월10일	독도 이동전화 개통
8월25일	독도주민(김성도씨집) 문패 및 우편함달기, 태극기·경북도기 전달(도지사)
9월14일	독도지킴이팀, 자치행정과에서 해양정책과로 이동
10월2일	제87회 전국제전(김천,10.17~23) 성화 독도에서 채화
10월10일	경북도의회 제210회 정례회, 독도에서 개최 - 독도 정주민 지원조례 제정('07년 1월부터 시행)
10월	‘독도 올바르게 알기’ 책자 2만부 발간
11월24일	‘동아시아의 국제질서와 독도’ 국제학술대회 개최
2007년 1월2일	도지사(김관용) 독도주민과 통화로 새해업무 시작

2월5일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과 독도 및 해양분야협력협약(MOU) 체결
2월8일	『평화의 섬, 독도』 영상물 DVD (한국어, 영어, 불어, 스페인어, 일본어) 제작 발간
2월22일	①도지사 독도 방문 주민 격려와 경비대 위문 ②특별강연 및 학술대회 개최(도청강당) · 세종대 호사카유지 교수 「독도영유권과 한일관계」 · 「독도영유권강화와 울릉도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학술대회 ③독도입도인원 확대(1일 2회 400명 → 1일 1,880명)
2월23일 ~3월3일	「우리 땅! 독도 특별전」 개최(대구시민회관)
2월	「독도 올바르게 알기」 외국어(영어, 일어, 중국어)판 점자책 발간
4월17일	한국해양개발원(KORDI)과 MOU 체결
5월29일 ~5월31일	제12회 바다의 날 기념 「우리 땅! 독도 특별전」 순회 전시회 개최 (포항문화예술회관)
6월11일	대구경북지역 독도전문가 토론회 개최(도청 제1회의실)

이상의 도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경상북도는 시마네현의 ‘다케시마의 날’ 조례제정에 대응하여 실효적 지배를 강화했다.³³⁾ 그런데, 주된 내용은 김성도씨의 독도 거주를 가능케 함과 동시에 생활비를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했고, 해수를 담수하여 하루 27만 톤의 식수를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독도의 전화개통 및 휴대전화를 가능하도록 했으며, 독도입도인원을 대폭 확대했다. 이 이외에도 경상북도는 많은 대응조치를 취했지만, 대부분 향후 계획이 주를 이루었고, 일과성의 행사도 적지 않았다. 장기적이고 포괄적으로 볼 때는 모든 조치가 유망하지만, 대응조치의 시급성과 우선순위로 볼 때,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는 실질적인 조치가 절실하다.

4.2 교류재개의 움직임

일본정부의 묵인아래 추진된 시마네현의 ‘다케시마 날’ 조례제정은 독립국가의 주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사건이다. 사안의 중요성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시마네현과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경상북도는 ‘다케시마의 날’의 조례제정 파기를 요청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마네현은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포토 시네마』를 경상북도에 보내어 독도가 일본영토임을 경상북도에 홍보했다. 이러한 시마네현의 행동은 더 이상 경상북도와와의 교류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듯했다.³⁴⁾

그런데, 경상북도 일각에서는 사안의 중요성을 망각하고 시마네현과의 교류를 재개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교류의 재개는 시마네현의 독도영토침탈 의욕을 묵인하는 행위이다.

경상북도교육청은 ‘타케시마의 날’조례 제정으로 교류가 중단된 지 채 1년

33) 경상북도 해양정책과 독도지킴이팀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임.

34) 島根県総務部総務課編(2006.2), 『ホトしまね 一特集 竹島一』第161号, pp.2-22.

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2006년 4월 시마네현 교육위원회의 요청을 받아들여 시마네현 교육위원회와 교원 상호 교류 합의서에 동의(우편)했다.³⁵⁾ 매년 1명씩 상호간에 교원을 파견하기로 했던 것이다.³⁶⁾ 교류재개의 이유로서는 시마네현 교육위의 요청이 있었고, 이전부터 이 학교는 영어·일어·중국어 원어민 교사를 초빙해 왔다는 것이다.³⁷⁾

이에 대해 ‘다케시마의 날’을 주도한 시마네현의 스미타 노부요시 지사는 「영토문제와는 떼어내 폭넓은 교류를 요청하고 있으므로 몹시 기쁘다」고 하여 경상북도와 전면적인 교류재개의 가능성을 확인했던 것이다.³⁸⁾

시마네현(지사 澄田信義)은 2006년 9월 5일 “시마네현과 경상북도가 소속한 동북아시아의 발전과 평화를 위해서는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가 이후에도 더욱 필요하다”고 하여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회(NEAR)³⁹⁾ 제6회 총회(부산 롯데호텔, 2006년 9월 12일-15일)에 시마네현 대표로 참석하는 부지사 마츠오 히데타카(松尾秀孝)와 경상북도 대표자간의 면담을 요청했다.

여기서 시마네현 대표는 「①시마네현은 민간문화교류 확대를 위해 기금을 조성하고 있고, 다각도로 학술교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2006년 시마네현 초중학생 32명이 한국 방문, 도내 2개 학교와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교육청

35) 경북-日 시마네현 교원 교류 재개,

<http://news.kbs.co.kr/article/local/200604/20060405/860202.html>(2007년 6월 21일 검색)

36) 후지와라 현교육장은 「즉시 현과 도의 교류재개에는 연결되지 않을 것이지만, 기쁘다」고, 교사를 환영했다. 시마네현에 파견된 교사는, 경상북도 구미여자중학교에서 일본어를 지도하는 교사로서, 2008년 2월까지 시마네현에 파견되어 마츠에시립여고를 중심으로 고등학교에서 한국어를 가르친다. 한편, 시마네현에서는 현내의 보통 고등학교에서 지리·역사를 담당하는 이즈모고등학교 교사인 야스다 히로야키 교사(36세)를 경상북도에 파견하여 8월1일부터 2008년 3월말까지 경북의 국어고등학교에서 일본어를 가르친다. 『中国新聞』7월 29일, 『山陰中央新報』2006년 4월 5일.

37) 시마네현 교육위, 경북 교육청과 교류 재개,

<http://kr.blog.yahoo.com/bookdongbook/199>

38) 『山陰中央新報』2006년 4월 5일.

39) [경상북도청] 몽골국, 19개 자치단체 한꺼번에 NEAR 회원가입 신청,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D&office_id=098&article_id=0000125492§ion_id=117&menu_id=117(2007년 6월 25일 검색), 연합뉴스(보도자료) 2006년 4월 11일.

동북아시아자치단체연합(NEAR)은 지난 1996년 9월 경상북도의 주도로 21세기 세계의 새로운 중심지로 떠오르고 있는 동북아시아에서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이끌어 나가기 위해 창설한 동북아시아 국제기구로서 지방정부가 지리적 접근성과 유대감을 충분히 활용하여 동북아시아의 협력과 발전방안을 공동으로 모색, 추진해 나가는데 그 의의가 있으며 그동안 경제통상, 문화 교류, 방재, 환경, 일반교류, 변경협력 등 6개 분과위원회별로 지방정부 차원에서 실질적인 교류와 활동을 활발히 추진해 오고 있다. 특히, 2006년 4월 경북(포항)에 설치한 우리나라 최초의 국제기구인 NEAR 사무국은 2006년 올해의 주력사업으로 ①NEAR 회원의 확대와 ②동북아시아의 실질적인 경제통상·교류협력을 위한 『경제통상네트워크』 구축사업 ③교류협력증진 포럼 개최 및 분과위원회 활성화 ④9월의 부산총회 개최 준비 등 다양하고 실질적인 교류사업들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NEAR의 회원수는 2007년 9월(예정) 현재 6개국(한국 10, 중국 5, 일본 11, 러시아 10, 북한 2, 몽골 21) 59개 자치단체이다.

을 통한 교원상호교환과견, 경도대, 울산대 등과 학생교류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경제교류를 위해서 시마네현 기업과 한국기업간의 합병실적도 있다. ② NEAR 사무국 사업과 관련하여 NEAR는 시마네현이 제창하여 경상북도가 주도적으로 결성했다. NEAR와 시마네현이 공동으로 청년 교류사업을 추진하자」고 요청했다.⁴⁰⁾

이에 대해 경상북도는 「원칙적으로는 모든 교류 사업을 빨리 재개하는 것이 상호 이득이 된다고 보지만, 국민정서를 고려해 볼 때 전면적인 교류재개는 어려움이 있다」고 전제하면서, 「①경도대, 현립대 간의 지속적인 학생교류사업 추진, NEAR 사무국에 시마네현 공무원 파견, 양 도 현 교육청간 실시중인 교원교류 및 홈스테이를 통한 학생 간 교류를 발전시키는 방안, ②민간단체의 초청은 민간이 자율적으로 추진하고, 관에서는 후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여 쉬운 것부터 차근차근 접근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개진했다.⁴¹⁾

즉 경상북도가 「①문화, 교육, 학술, 경제에 관련한 민간단체, 교육기관, 기업 간 교류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추진, ②NEAR 사업에 관한 상호 참가」를 전적으로 부정하지 않았다는 것이다.⁴²⁾

시마네현은 경상북도가 요구하는 ‘다케시마 날’의 조례제정 파기는 전혀 이행할 의사가 없으면서 다양한 방법으로 집요하게 실질적인 교류재개를 시도하고 있다. 경상북도는 무비판적으로 상당 부분 시마네현의 요구에 동의하고 있다.

시마네현(시마네현 환경생활부 문화국제과장 나이토 타카야키 외 2인)은 경상북도와의 합의를 실현하기 위해 NEAR 연합사무국(사무국장)과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과 시마네현과의 차후의 제휴, 파견 직원, 문과위원회 의 활동 등」, 2007년도 사업을 논의하기 위해 2006년 11월 16일 경상북도를 방문했다. 그 결과 우선적으로 시마네현 직원이 경상북도에 상설되어있는 NEAR 사무국에 파견되어 상주하게 되었다.⁴³⁾

그리고 시마네현 환경생활부 문화국제과(과장 히노 테루오(樋野輝男 외 3명)는 2007년 5월 14일 경주에서 개최되는 NEAR 실무자 워크숍 참가차로 방한

40) 시마네현과 경상북도의 교환 문서.

41) 경상북도(2006), 「NEAR總會期間中の副知事会議について」, 「島根県環境生活部 文化国際課가 경상북도 국제통상과에 보낸 문서」, 2006년9월6일자.

42) 상동.

43) 경상북도(2006), 「차년도 협의에 대하여」, 「시마네현 환경생활부 문화국제과장이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사무국 사무국장에게 보낸 문서」, 2006년11월8일자.

하여 연합 사무국을 설치, 운영하고 있는 경상북도를 방문하여 동북아시아 지역 간의 교류에 관해서 의견을 교환했다.

또한 2006년 7월 12일 시마네현은 2007년 4월 입학 을 위한 ‘시마네현립대학 교류현 유학생’ 후보자 2명을 선정해 줄 것을 경상북도에 요청했다.⁴⁴⁾

이처럼 시마네현은 경상북도와 의 교류재개를 꾸준히 도모하여 소기의 목적으로 달성하고 있다. 향후에도 꾸준히 완전한 교류재개를 위해 요구해 올 것임에 분명하다.

직접적인 교류는 아니지만, 동북아시아지자체연합회가 동해황해연안해변의 표착물 조사를 실시했는데, 2005년에는 25지자체와 53해안이 참가했고, 2006년에는 26지자체와 52해안이 참가했다. 경상북도와 시마네현도 참가했다.⁴⁵⁾

이처럼 시마네현은 ‘다케시마의 날’을 파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양 지자체간의 교류를 재개하려고 꾸준히 노력하고 있는데, 경상북도가 시마네현의 요구에 소극적이긴 하지만, 교류재개에 응하는 것은 ‘다케시마의 날’의 본질을 망각했거나 지나치게 축소 해석하여 생긴 분명한 정책 오류일 것이다. 위에서 지적했듯이 일본어교사의 교류가 필요하다면, 다른 지자체와 교류협정을 체결하여 교원을 상호 교환할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경상북도는 시마네현에 대해 입장을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다.

5. 중단이후의 2년간의 손익계산서

5.1 경상북도의 경우

①플러스적 측면

첫째로, 시마네현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서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강화할 수 있게 되었다. 공교롭게도 경상북도와 시마네현 양 지자체는 독도를 관할구역으로 하고 영유권을 주장하는 도와 현이다. 지자체 교류의 기본 취지가 상호 협력과 권익도모에 있다. 그래서 종래 경상북도(혹은 한국정부)가 독도의 실효적 지배 강화의 필요성을 느낄 때 자매결연관계에 있던 시마네현의 항의를 전적으로 무시할 수 없는 입장에 놓여 있었다. 그런데 이번에 시마네현이 먼저 ‘다케시마의 날’의 조례를 제정하여 문제를 야기했으므로 경상북도는 거기에 대응

44) 경상북도(2006), 「2007年度島根県立大学交流県留學生候補者の選考について」, 島根県総務部総務課 大学改革スタッフ主任金築豊和가 大韓民國慶尙北道에 보낸 문서, 2006년7월12일자.

45) http://www.npec.or.jp/northeast_asia/korea2/introduction/pdf/016.pdf(2007년 6월 22일 검색)

하는 조치로서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무제한으로 강화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이했다고 할 수 있겠다.

특히 ‘다케시마의 날’ 조례제정이 촉발한 양국정부 간의 외교도 원만하지는 않다. 따라서 독도실효적 지배에 대해 일본정부가 항의하더라도 그다지 의식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양국관계가 정상화되기 이전에 한국정부 및 경상북도는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실효적 지배의 강화에 전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교류단절 2년여 간의 실효적 지배강화의 실적을 보면, 한국정부 및 경상북도는 독도방문객 수의 증원, 김성도씨의 거주, 전화개통, 해수담수화로 인한 식수해결이 전부이고, 그 이외 대부분은 향후계획일 뿐, 그다지 실질적인 실효적 지배를 실행하지 못했다는 점이 아쉽다.

2007년 12월 대통령선거에서 새로운 정부가 출현하게 되면, 일본정부는 외교적 관계개선을 요청해올 것이다. 양국관계가 정상화 되면 독도문제로 더 이상 양국관계의 악화를 조장하지 말자는 합의와 더불어 독도문제의 현상유지를 약속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되면, 더 이상 실효적 지배 강화는 어려워 질것으로 전망된다.

둘째로, 일본이 한국측이 주장하는 독도의 역사적 근거를 부정하여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독도지킴이팀의 조직과, 경상북도 소재의 각 대학에 생긴 독도관련연구소 개소, 동북아역사재단 등의 출현은 독도연구의 활성화에 기여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셋째로, 일본에 의해 발생한 독도영유권 문제는 국가주권의 문제이다. 한국은 36년간 일본의 불법통치를 당한 적이 있다. 이를 교훈삼아 보편적이 내셔널리즘에 입각한 국민들의 국가관을 재정립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②마이너스적 측면

지자체간의 국제교류의 근본취지는 세계화 및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상호협력으로 문화교류, 학술교류, 경제교류를 통해 양 지자체의 권익을 도모하는데 있다. 양 지자체는 세계화 지방화시대에 뒤떨어지지 않기 위해 15여 년 간 문화교류, 학술교류, 경제교류를 위해 노력해왔다. 지자체간의 교류는 중앙정부의 편협한 내셔널리즘 강화로 지역간 교류가 원활하지 못할 때 이를 보완하는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이번 양 지자체간의 교류단절은 이러한 장점을 포기했다는 점이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15년여 간의 양 지자체의 교류실적을 보면 매우 활발한 교류가 있어서 교류의 단절로 양 지자체에 엄청난 지장을 초래했다고 말할 정도는 아니다. 그러나 15년여 간의 교류가 바탕이 되어 미래지향적인 양 지자체의 발전에 초석이 될 수 있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5.2 시마네현의 경우

①플러스적 측면

첫째로, 일본정부의 목인 아래 행해진 시마네현의회의 ‘다케시마의 날’ 조례 제정은 시마네현민을 비롯하여 독도문제에 무관심했던 일본국민의 관심을 갖도록 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일본정부(외무성)의 영토정책과도 상통된다. 따라서 편협한 내셔널리즘에 입각한 일본정부의 영토정책에 일조했다고 볼 수 있다.

둘째로, 독도가 일본영토라는 새로운 논리를 만드는데 일조했다고 볼 수 있다. 그 성과로서는 외무성홈페이지의 ‘다케시마문제’를 새롭게 보완했다.

셋째로, ‘다케시마문제연구회’가 중심이 되어 ‘죽도문제’ 연구에 새로운 계기를 마련했으며, 또 시마네현청, 현의회, 박물관 및 자료관 등 공공기관이 독도에 관심을 갖게 되어 시마네현립대학의 독도자료센터, 현립독도자료관 등을 개관하여 독도자료를 새롭게 발굴하고 수집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는 점이다.

넷째로, ‘다케시마의 날’ 조례 제정으로 매스컴의 집중을 받게 되어 국제사회에 ‘다케시마’가 일본영토라는 여론을 조장하는데도 일조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②마이너스적 측면

첫째로, 일본정부의 목인으로 추진된 시마네현의 ‘다케시마 날’ 조례 제정은 편협한 내셔널리즘을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지금은 세계화, 지방화시대로서, 국제사회는 지역 간의 협력을 바탕으로 급속도로 국제협력을 이루어내고 있다. 동북아시아는 다른 역내지역처럼 지역공동체를 형성하여 상호 협력으로 지역 발전을 도모해야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일본은 경제대국으로서 지역공동체 형성의 주도권을 장악할 수 있는 위치에 놓여있다.

그런데 동북아시아는 한,중,일 3국, 특히 일본은 여전히 편협한 내셔널리즘이 강하게 남아있어 지역 간의 국제협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해결의 돌파구로서 시마네현과 경상북도의 교류를 비롯한 지자체간의 국제교류에 의지하는 바가 컸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시마네현의 이번 조례 제정으로 일본의 지자체 32곳이 한국의 자매 도시들과 교류를 중단하거나 교류보류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이는 또 독도 영유권의 본질을 더욱 왜곡시키는 계기가 되어 한일관계를 소원하게 하는 요인을 만들었다.

둘째로, 지자체 교류의 근본취지인 문화교류, 학술교류, 경제교류가 전면적으로 중지되어 시마네현의 국제화, 세계화가 늦추어지게 되었다.

예를 들면, 시마네대학은 경북대학교와의 교류단절에 대해, ‘다른 대학들과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고 불만을 제기했고, 또한 시마네 현과 근교 도시는 한

국 관광객이 감소해서 피해를 보고 있다고 토로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시마네 현 지사는 ‘우리 지역에서 서울 발 국제선 노선을 하나 만들어야겠다’고 제안했다고 한다.⁴⁶⁾

즉 시마네현은 ‘다케시마의 날’ 파기는 있을 수 없으므로 파기를 요구하는 경상북도와의 교류가 재개되지 않는다면, 다른 방법을 모색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6. 맺으면서

위에서 살펴본 바처럼, 지자체의 교류목적은 국가 간의 교류가 원만하지 않을 때, 지자체간의 교류로 지역 간의 협력을 도모하고,⁴⁷⁾ 또 지자체간의 교류를 통하여 문화교류, 학술교류, 경제교류 등을 활성화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데 유익이다.

경상북도는 지리적 근접성과 역사적 관련성을 근간으로 시마네현이 요청하는 양 지자체간의 자매결연을 1989년 체결하게 되었다. 양 지자체는 2005년 3월 16일 결연이 중단될 때까지 15년간 우호관계를 유지하면서 교류를 해왔다.

실제로 보면, 양 지자체의 교류는 국제교류의 근본 취지인 문화교류, 학술교류, 경제적 교류를 철저히 이행하여 상호 협력과 공존을 이루어내었다고 할 만큼 활발한 교류가 있었다고는 할 수 없다.

실제로 양 지자체 간의 주된 교류는 역내 중, 고교와 대학 간의 교사 및 연구자 상호 파견, 공무원 상호파견, 유학생 및 학생교류 등이 대부분이었다. 규모면에서도 년 간 수십 명, 수백 명을 상호 교환하는 실적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다. 게다가 경제교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⁴⁸⁾

46) 일본 ‘다케시마의 날’ 정부 관계자 불참,

<http://www.ohmydt.com/woman/viewwoman.html?num=1017&mc=70&tc=86/2006년 6월 22일> 검색)

47) 1996년 9월 『동북아자치단체연합』을 주도적으로 창설, 초대의장을 지낸 경상북도 이의근지사는 “동북아시아는 역사적으로 갈등과 분쟁이 많은 지역으로 그동안 국가간의 협력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면서 “이제는 국가간의 외교활동도 지방과 지방이 교류하는 지자체화(Glocalization)를 통해서 자치단체간의 협력을 이끌어내고, 합의를 이루어 나가다 보면 국제화(Globalization)와 지방화(Localization)가 동시에 이루어진다”고 역설 하면서 그 모델이 바로 ‘동북아자 치단체연합’의 특징이라고 말했다. [경상북도청] 몽골국, 19개 자치단체 한꺼번에 NEAR 회원 가입 신청,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D&office_id=098&article_id=0000125492§ion_id=117&menu_id=117/2007년 6월 25일 검색), 연합뉴스(보도자료) 2006년 4월 11일.

물론 미래지향적으로 볼 때 유럽사회를 비롯한 세계화의 흐름은 리저널리즘 시대라고 할 만큼 국가 간의 교류 이외에도 지방간의 교류가 활발히 진행되어 편협한 내셔널리즘을 극복하고 지역공동체를 형성하여 국제협력으로 세 평화와 안정을 도모하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시마네현과 경상북도라는 양 지자체간의 교류는 무엇보다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그런데 2005년 일본정부의 묵인아래 시마네현의 ‘다케시마의 날’ 조례제정으로 촉발된 양국의 교류중단은 대우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상호협력에 의한 공동 발전이라는 교류의 근본취지를 저버리고, 오히려 이를 이용하여 일방 국가의 주권을 침해하려는 행위는 묵과할 수 없을 것이다.

양국의 교류가 재개되려면, 시마네현이 ‘다케시마의 날’을 파기하든가. 아니면 한국측이 ‘다케시마의 날’의 조례제정으로 초래한 실(失)을 극복할 만한 대안조치를 내려야할 것이다.

시마네현이 ‘다케시마의 날’ 조례를 제정하여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독립국가에 대한 주권침해 행위이다. 이런 상태에서 교류가 재개된다는 것은 주권침해 행위를 묵인해주는 결과가 된다. 따라서 경상북도의 ‘다케시마의 날’ 파기요청을 끝까지 수용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교류재개는 있을 수 없으며, 거기에 상응하는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 그것은 바로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더욱 굳건히 강화하는 일일 것이다.

한국은 교류중단 이후, 거기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려고 노력해왔다. 그러나 여전히 ‘다케시마의 날’ 조례제정을 극복할 만한 상응조치로서는 백분의 일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⁴⁸⁾ 실효적 지배의 강화를 더욱 가시화 하여⁵⁰⁾ ‘다케시마의 날’을 무력화시켜야 할 것이다. ‘다케시마의 날’을 무력화 시키는 상응조치가 없는 상황에서 양 지자체간의 교류는 독도영토주권에 독(毒)이 될 것이다. 강력한 상응조치 없이 교류가 재개된다면, 서로 자극적인 행동의 자제를 요구할 것이고, 시마네현은 조례로 법제화된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매년 정기적으로 강행하게 될 것이다. 반면, 경상북도가 실효적 조치를 강화하면, 자매결연을 명분으로 사사건건 친목교류를 해친다고 하여 이익을 제기해올 것이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양 지자체간의 교류가 재개되기 전에 ‘다케시마의 날’을 무력화 시킬 수 있는 실효적 지배의 가시적인 조치를 강화해야할 것이다.

둘째로는 향후 시마네현과의 교류는 독도 영유권의 본질을 알리는 학술대회, 독

48) 2004년 1월 30일 국제화재단 회의실에서 개최된 「일본과의 자매결연활성화를 위한 좌담회」의 요지.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의 자료, [http://www2.klafir.or.kr/\(2007년 6월 20일 검색\)](http://www2.klafir.or.kr/(2007년 6월 20일 검색))

49) 가시적인 실효적 지배는 일반인의 독도방문 허용, 김성도씨 부부의 거주, 독도정기운행 정도이다.

50) 경상북도 해양정책과 주관 「독도영유권 공고화방안」 참조 바람.

도사진전 등 독도영유권 강화할 수 있는 이벤트를 중심으로 행해져야할 것이다.

셋째로는 일본이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포기하지 않는 한, 양 지자체간에는 수시로 충돌의 소지를 안고 있다. 따라서 시마네현과의 자매결연을 전적으로 포기하고 독도영토와 관련이 없는 일본의 다른 지자체와 교류도 고려해 볼 것을 제안한다.

【参考文献】

- 竹島問題研究会편(2006.6), 「竹島問題研究会의 중간보고서」, pp. 23-72.
- 竹島問題研究会편(2007.3), 「竹島問題研究会의 최종보고서」, pp.13-25.
- 島根県・竹島北方領土返還要求運動島根県民会議編(2006.2), 『竹島』, pp.1-3.
- 山陰中央新報社編(2006.7), 『発信 竹島 (下条正男・拓殖大学教授に聞く)』
山陰中央新報社, pp.2-54.
- 島根県総務部総務課編(2006.2), 『ホトしまね 一特集 竹島一』第161号, pp.2-22.
- 시마네현/다케시마·북방영토반환요구운동 시마네현민회의편(2006), 『다케시마 - 돌아오라! 다케시마-』, pp.1-3.
- 경상북도편(2007), 『독도·동해 현안 대응능력 제고 방안 모색』, 동북아역사재단,
경상북도 주체, 학술심포지움 보고서(경주현대호텔), 2007년6월26일자. pp.1-15.
- 경상북도(2006), 「시마네현환경생활부 문화 국제과장 나카시마 사토시가 경상
북도 국제통상과장 이병환에게 보낸 문서」, 2006년2월1일자.
- 경상북도(2006), 「2007年度島根県立大学交流県留学生候補者の選考について」,
島根県総務部総務課大学改革スタッフ主任金築豊和가 大韓民国慶尚北道에
보낸 문서」, 2006년7월12일자.
- 경상북도(2007), 「시마네현 직원방문에 관하여」, 「일본 시마네현 환경생활부
문화과장 히노테루오가 경상북도 통상외교팀장에게 보낸 문서」, 2007년
5월2일자.
- 경상북도(2006), 「차년도 협의에 대하여」, 「시마네현 환경생활부 문화국제과장이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사무국 사무국장에게 보낸 문서」, 2006년11
월8일자.
- 경상북도(2006), 「NEAR総会期間中の副知事会議について」, 「島根県環境生活
部 文化国際課가 경상북도 국제통상과에 보낸 문서」, 2006년9월6일자.
- 경상북도(2006), 「시마네현 교류관련 취재 요청」, 「일본 山陰中央TV보도제
작국이 경상북도 국제통상과에 보낸 문서」, 2006년4월12일 취재요청.
- 경상북도(2006), 「독도관련취재요청」, 「시마네현 산음방송 시마네 보도부가
경상북도 국제통상과에 요청한 문서」, 2006년2월16일 취재요청.
- 경상북도(2006), 「金寛溶知事へのインタビュー取材の願い」, 「山陰中央新報社가
慶尚北道通商外交チーム長에게 보낸 문서」, 2006년12월22일자.
- 『山陰中央新報』, 2006년4월5일.
- 『朝日新聞』, 2006년3월11일 사설.

要 旨

2005年3月17日、島根県が日本政府の黙認の元で「竹島の日」を条例で制定した。韓国の慶尚北道はそれに抗議するためにその日をもって15年間続けてきた友好交流の断絶を宣言した。それから2年半が経った。地方化、世界化の時代である現今は自治体間の国際交流は重要な 이슈で世界的潮流である。両自治体の交流断絶はこのような意味で憂慮するものであろう。しかし日本が竹島の日を条例で制定したことは韓国の領土である独島の領土主権を侵害するものである。それは見逃せない。このような問題提議から両自治体の交流の断絶で韓国側が得たものと失ったものを研究することは非常に意義あるもので、また、本研究の目的でもある。

本研究の成果として、実際両自治体は15年間交流を続けてきたが、それほど成果が多くなかったことを指摘することができる。その理由としては、日本は1980年代を国際化時代と宣言したので、各自治体がその一貫として国際交流を積極的に進めた。その時、島根県の提案を慶尚北道が受け入れて姉妹関係を結んだわけである。そのとき、慶尚北道はそれほど受け入れの準備ができていなく、ビジョンももっていなかったのである。そもそも国際交流の目的は主に文化交流、学術交流、経済交流といった形で進められるが、究極的には、相互経済的利益をあげることにあった。実際両自治体は経済的交流はほとんど行われていなかった。交流の形は学生のホームステイ、日本語と韓国語の講師交換程度であったが、それも数件に過ぎまいものであった。

こういった状況だから、韓国はこの断絶で失ったものよりは得たものが多かったといえる。すなわち、主権を守るための独島の実行支配を強化する契機となったのだから。日本にとっては、失ったものが多いと思う。交流が全面的に中断されることによって国際的信頼を失い、当初本来の交流意図はほとんど達成されなかったのである。慶尚北道は今までの成果の一つである日本語教師の交換が必要ならば独島と関係のない他の自治体と交流を結べばよいものだ。

キーワード：自治体、国際交流、慶尚北道、島根県、竹島の日、独島、竹島、領有権紛争

투 고 : 2007. 8. 31
1차 심사 : 2007. 9. 8
2차 심사 : 2007. 9. 29

住 所 : (712-270) 경북 경산시 조영동 강산애아파트 103동501호

電 話 : 019-553-5733

e-mail : nihonbu@daegu.ac.kr